

통념을 깨는 놀라움과 재미, 그리고 상상력

프랑스 질 바비에
서울서 첫 개인전
작품 '인간 주사위'
라인하르트 소설서 영감

“위장이 담이 모자라서 화가했다는 걸 상상해봤다.”

죽은 듯 누워있는 한 남자의 뱃속이 열렸다. 스포링처럼 튀어나온 장기들이 뿌리를 거느린채 매달린 그림 'Aaahh!' (2004) 앞에서 그는 “장기들이 뇌보다 더 강력해졌다면서 ‘장기들이 몸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찾아나가는 걸 형상화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유명한 질 바비에(51)가 한국에 왔다.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문화행사 일환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 첫 개인전을 연다.

12일 전시장에서 만난 그는 작품처럼 ‘개그와 진지함’을 오갔다. 스피커 소리가 삐아~ 귀청을 찢는듯 울리자, 놀라기는 커녕 마이크로 북북 치며 웃음을 건넸고, 큐레이터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마이크를 가로채 작품이야기를 자세하게 덧붙이기도 했다.

전시는 놀라움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한다.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시도하려”는 듯 상상력과 자유가 넘친다.

그림이 걸린 전시장 안쪽벽은 검은색으로 바깥은 하얗고로 칠해서 극단의 경계를 오간다. 독특한 상상력이 넘쳐나 ‘성적인 코드’도 화해해버렸다.

“인간 주사위”는 루크 라인하르트의 소설 ‘인간 주사위’에서 영감을 받았다. 작가는 이 소설을 읽고 이전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어떤 단란한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경험을 했다. “소위 합리적이지만 갖 사회 통념에 반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에게 더 큰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연적인 상황이 반드시 신중한 판단보다 더 훌륭한 선택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세요, 정치,



작품 'Aaahh' (2004)를 표현하며 질 바비에 “장기들이 몸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찾아나가는 걸 형상화했다”고 말했다.

경제, 생태 등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이죠, 합리성이 절정에 달했다고 보아도 좋을만큼 사람들은 갖가지 문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는 “우연적인 것들이 삶을 더욱 강렬하게 경험할수도 있는 것”이라며 “미래도 열려 있듯이 과거도 폐쇄가 되어선 안된다. 무한대로 재창조되어야 한다”며 수다스럽게 말했다.

얼키설기 위여 만든 설치작품 ‘인간주사위’의 추락은 남태평양 바누아투공화국에서 열리는 성인식 ‘나골’을 보면서 만들었다. 바누아투인들은 반지점프를 하듯 발이 묶인 채 20m 높이 나무망루에서 몸을 던지는 의식으로, 결국 추락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운명이다. ‘나골’ 의식에서 낙하하는 몸은 결코 맨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린시절 그것을 지켜보던 작가는 자신의 작품 ‘인간주사위’와 나골을 접목했다.

“인간주사위는 낙하하는 동안 땅에 구르

지도 않고 하나의 숫자를 가리키지도 않는다. 인간 주사위의 낙하는 영원히 결정을 보류하게 만드는 시간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연적 원리를 따르는 게임의 신비를 경험한다.

이 신비는 주사위가 손을 떠난 순간과 하나의 숫자를 가리키게 되는 순간 사이에 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우연은 작동되지만 아직 최종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다. 나는 미완성에 관한 이같은 사유가 아주 흥미롭다.”

질 바비에의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공화국 태생으로 20세에 프랑스로 건너가 마르세유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마르세유를 근거지로 꾸준히 활동해 온 조형 예술가이다. 작품 세계는 문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현상과 과학 특히 생물학의 논리를 담고 있다. 이는 작가가 창조해낸 규칙과 생태계에 의해서 조직된 새로운 마이크로 세계다. 영국의 수학자

존 콘웨이(John Conway)의 ‘생명게임’ (Game of Life) 원리를 종종 본인의 작품 세계와 비유하여 설명한다. 세포 자동자(Cellular Automaton)의 대표적인 예인 존 콘웨이 ‘생명게임’은 임의적으로 배열된 세포들이 기본 법칙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 소멸하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증식의 퍼즐을 만들어 낸다는 개념이다.

“한국 관람객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 작품을 예술이라는 넓은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예술작품이 있고 무수한 전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 역시 그 중 하나의 버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의 버전일 뿐이라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시는 7월 31일까지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19일 출범

300여명 참석... 명사특강도 마련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이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라북도라는 가치를 내걸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전라북도예술회관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출범식은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를 비롯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되며, 출범기념 프로그램으로 명사특강도 마련된다. 특강은 19일에는 고은 시인의 ‘전복의 맛’을, 20일에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전복의 맛’을 주제로 펼쳐진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 융·복합 사업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항후 재단은 다양한 소통과 교류기회 확대를 현장형 문화예술기반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예술로 행복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며, 전북문화재단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이병천 대표이사는 문화관광 융·복합사업을 위해 “문화사업은 군 지역 문화진흥에, 관광사업은 도내 곳곳의 비경이나 절경지를 선정 관광자원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사업역점을 둘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2016 Young Classic 협주곡의 밤' 연주 모습

군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 공개모집

도내 학교 재학생 대상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오는 9월 8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2016 Young Classic 협주곡의 밤' 협연자를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협주곡의 밤은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며 음악상이 뛰어난 영재들을 발굴하여 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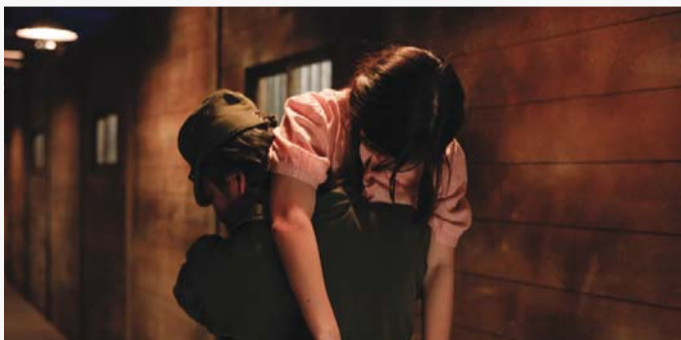
공모양인 오는 1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거주자(공공일로부터 6개월이상이거나 또는 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피아노 부분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교향악단 사무실(예술의전당 지하층)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군산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3월 극장가 '귀향' 흥행성공 중소배급사 와우픽처스 랭킹 1위로



영화 '귀향'

3월 극장가에서 위안부 실화영화 '귀향'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중소배급사 와우픽처스가 배급사 랭킹 1위에 올랐다. 관객 221만명, 점유율 19.8%로 거둔 이례적 성과다.

한국영화 '귀향'이 전체 흥행성적 1위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3월 대비 한국영화 관객수와 극장 매출액은 늘고 외국영화는 감소했다. 그럼에도 외국영화(64%) 점유율이 한국영화(38%)보다 1.8배 높게 나왔다. 영화 관객수는 지난해 3월보다 6만명 줄었으나 매출액은 1억원 늘었다.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2016년

3월 전체 극장 관객 수는 1126만명, 전체 극장 매출액은 88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관객 수는 6만명(0.5% ↓) 감소하고, 매출액은 1억원(0.1% ↑) 증가했다. 관객 점유율은 한국영화 36.0%, 외국영화 64.0%를 기록했다.

3월 한국영화 관객 수와 극장 매출액은 각각 403만명, 31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만명(3.3% ↑), 8억원(2.6% ↑) 증가했다. 외국영화 관객 수와 극장 매출액은 각각 723만명, 5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9만명(2.6% ↓), 7억원(1.2% ↓) 감소했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4월 13일>

▷쥐띠
46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80년생: 다른 사람과 희합이 잘 되고 편안한 하루가 될 것이다.
72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
8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

▷소띠
49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나 심상에 주의하라.
6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73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없어 술을 즐기니 내실을 다지며 때를 기다려라.

▷호랑이띠
50년생: 서로 겹치는 뜻이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니 속을 노출하지 마라.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생긴다.
7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워도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86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헛사들의 조언을 구하라.

▷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므로 스트레스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주변 사람에게 베풀어야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5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87년생: 타인의 일에 나서지 마라.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난다.
64년생: 강하게 나아가면 부리자나 적명한 티끌만이 살길이다.
76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계약을 성사시키기엔 좋은 운이다.
88년생: 흥기만으로 행동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

▷범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운.
77년생: 고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라.
89년생: 소화가 계통의 질병에 유의해야 하는 운이나 심상에 주의하라.

▷말띠
5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는 운.
66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매사 열성 움직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능력 발휘되는 좋은 운이다.
90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으나 판단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지나친 자기주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67년생: 헛사들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긴다.
79년생: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매사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9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

▷원숭이띠
56년생: 외부적인 일들이 생각 외로 잘 해결될 수 있는 운이다.
68년생: 동기간과 함께 움직이면 이득을 볼 수 있겠다.
80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
92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나 타인과의 협력을 불가능하다.

▷닭띠
57년생: 식욕이 따르는 운이나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69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나 컨디션 조절에 신경써라.
81년생: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93년생: 무리한 일로 피곤이 포기하라.

▷개띠
48년생: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운이나 문제가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운이다.
60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후반에는 좋아지지 않을 때 그 우의 일을 대비.
7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실수가 따르는 운이다.
84년생: 자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따르는 운.

▷돼지띠
47년생: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돕거나 돕건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운.
5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는 운이다.
71년생: 상황이 좋지 못할 때에는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려라.
83년생: 배운 만큼 돌아오니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